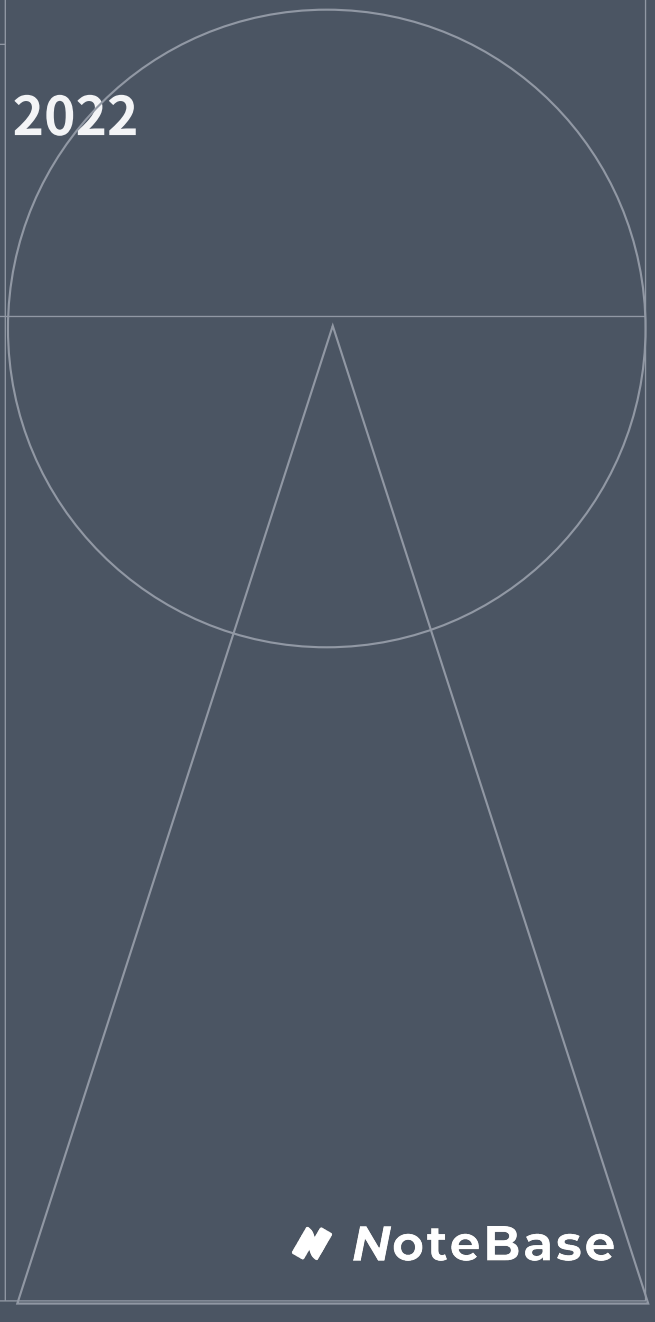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2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2

1.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붉은빛을 띤 장미가 아름답다.
② 얼음이 얼어서 넘어지기 십상이다.
③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 섧고 분했다.
④ 그녀는 예의가 발라서 보기 좋다.
⑤ 그는 분노를 삭히려고 노력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용언의 올바른 활용형과 뜻에 맞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띠다'는 빛깔이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섧다'는 슬프고 서럽다는 뜻이다. '바르다'는 '-아서'와 결합하면 '발라서'가 된다. 마음속의 감정이나 숨 등을 가라앉히는 것은 '삭이다'이고, 김치나 젓갈 등을 익게 하는 것은 '삭히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띤'은 빛깔이나 성질을 가진다는 뜻의 동사 '띠다'가 관형형 어미 '-ㄴ'과 결합한 올바른 활용형이다. 따라서 '붉은빛을 띤 장미'가 맞다.
② O —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을 뜻하는 명사이고, '십상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아주 쉽다는 뜻이므로 '얼음이 얼어서 넘어지기 십상이다'가 맞다.
③ O — '섧다'는 슬프고 서럽다는 뜻의 형용사이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와 결합하면 '섧고'가 된다. 따라서 '섧고 분했다'가 맞다.
④ O — '바르다'는 '-아서'와 결합할 때 '르' 불규칙 활용을 하여 '발라서'가 된다. 따라서 '예의가 발라서'가 맞다.
⑤ X — 틀린 표현은 '분노를 삭히려고'이다. 감정인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뜻에는 '삭이다'를 써야 하므로 '그는 분노를 삭이려고 노력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삭이다’와 ‘삭히다’의 발음과 형태가 비슷한 점이 함정이다. 분노·화·긴장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가라앉힐 때는 ‘삭이다’를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용형은 기본형에 어미를 직접 붙여 확인하고, ‘삭이다/삭히다’는 목적어를 살핀다. 감정이나 숨을 가라앉히면 ‘삭이다’, 음식물을 발효시켜 익게 하면 ‘삭히다’이다.

암기 포인트

분노는 삭이고, 김치는 삭힌다.

NoteBase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그가∨올∨듯도∨하다.
② 그가∨언제∨오는∨지∨확인했다.
③ 네가∨그∨일을∨했을∨리가∨없다.
④ 서울과∨인천∨간∨국도를∨이용한다.
⑤ 열∨명∨내지∨스무∨명의∨학생들이∨참석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하나의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띄어쓰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말의 꾸밈을 받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문항의 '듯', '리', '간', 단위를 나타내는 '명'이 이에 해당한다.
어미 '-는지': 막연한 의문이나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용언의 어간에 붙여 쓴다. 따라서 '오는지'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듯'은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올'과 띄어 '올 듯도 하다'로 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오는 지'이다. 여기서 '-는지'는 의문이나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그가 언제 오는지 확인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까닭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했을 리가 없다'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④ O —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간'은 의존 명사이므로 '서울과 인천 간 국도'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⑤ O —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성 의존 명사 '명'은 '열 명', '스무 명'처럼 띄어 쓰며, 범위를 잇는 '내지'도 앞뒤 말과 띄어 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지'를 의존 명사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무엇을 할지', '오는지 확인하다'처럼 문장 안에서 의문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이끄는 '-는지'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의 관형사형이 꾸미는 명사 '듯·리·간·명'은 띄어 쓰고, 용언 뒤에서 의문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이끄는 '-는지'는 붙여 쓴다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는 띄고, 의문을 이끄는 어미 '-는지'는 붙인다.

NoteBase

3. 밑줄 친 ㉠과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 단어 내의 음운 변동은 여러 유형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따뜻하다[따뜨타다]와 ㉡삯일[상닐]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① ㉠과 ㉡ 중 ㉠에만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② ㉠과 ㉡ 중 ㉠에만 음운의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③ ㉠과 ㉡ 모두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④ ㉠과 ㉡ 모두 음운의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⑤ ㉠과 ㉡ 모두 음운 변동을 거치며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단어에서 여러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날 때 각 변동의 유형과 음운 개수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치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동이며 음운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변동,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기는 변동,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변동이다.
ㄱ '따뜻하다[따뜨타다]'에서는 받침 ㅅ이 음절 끝에서 ㄷ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나고, 이어 ㄷ과 ㅎ이 ㅌ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일어난다.
ㄴ '삯일[상닐]'에서는 겹받침 ㄳ의 ㅅ이 탈락하고 ㄴ이 첨가되며, ㄱ이 뒤의 ㄴ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에만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가 틀렸다. ㄱ에는 대치와 축약이 일어나며, 탈락은 ㄴ에서 겹받침 ㄻ의 ㅅ이 없어질 때 일어난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 중 ㄴ에만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이다.
② X — ‘ㄱ에만 음운의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가 틀렸다. ㄴ의 ‘일’ 앞에 ㄴ이 첨가되어 [닐]이 되므로 첨가는 ㄴ에서만 일어난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 중 ㄴ에만 음운의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이다.
③ X — ‘ㄱ과 ㄴ 모두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가 틀렸다. ㄱ에서는 ㄷ과 ㅎ이 ㅌ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일어나지만, ㄴ에서는 탈락·첨가·대치가 일어나고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ㄱ과 ㄴ 중 ㄱ에만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이다.
④ O — ㄱ에서는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고, ㄴ에서는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뀐다. 두 경우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대치가 일어난다.
⑤ X — ‘ㄱ과 ㄴ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가 틀렸다. ㄱ은 축약으로 음운이 하나 줄지만, ㄴ은 ㅅ의 탈락으로 하나 줄고 ㄴ의 첨가로 하나 늘어 전체 음운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ㄱ은 음운 개수가 줄고, ㄴ은 전체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한 단어에 나타난 여러 변동 중 눈에 띄는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ㄴ은 탈락으로 음운이 줄지만 첨가로 다시 하나가 늘어나므로 최종 음운 개수는 줄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와 발음을 음운 단위로 차례대로 비교하여 바뀌면 대치, 없어지면 탈락, 새로 생기면 첨가, 둘이 하나가 되면 축약으로 판단한다. 여러 변동이 함께 나타나면 각 단계의 증감까지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ㄱ은 대치+축약, ㄴ은 탈락+첨가+대치이며, 공통 변동은 대치이다.

NoteBase

4. 국어 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② 이중 주어 구문이 발달되어 있다.
③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에 속한다.
④ 공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발달했다.
⑤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문법적 특징 가운데 어미, 이중 주어 구문, 어순, 공손성 표현, 수식어의 위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언어이다. 조사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므로 문장 성분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고 수식어는 일반적으로 수식을 받는 말보다 앞에 놓인다. 높임법과 다양한 종결 어미를 통해 공손성도 세밀하게 표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어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시제, 높임, 문장 종결 방식 등을 나타내는 어미가 발달해 있다.
② O — '코끼리는 코가 길다'처럼 한 문장에 주어처럼 보이는 성분이 둘 나타나는 이중 주어 구문이 발달해 있다.
③ O — 조사가 주어·목적어 등의 문법적 관계를 밝혀 주므로 문장 성분의 위치를 어느 정도 바꾸어도 의미 관계가 유지되어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④ O — 주체·객체·상대 높임과 종결 어미 등 공손성을 표현하는 문법적 수단이 발달해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다'이다. 국어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 같은 꾸미는 말이 일반적으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따라서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를 모든 단어의 배열이 자유롭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는 조사가 표시하는 문장 성분의 이동에 관한 특징이며, ⑤처럼 수식어가 피수식어보다 앞서는 원칙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의 어순 문제에서는 문장 성분의 이동과 수식어의 위치를 나누어 판단한다. 조사가 붙은 문장 성분은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지만, 관형어·부사어는 원칙적으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놓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어는 조사·어미가 발달하고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보다 앞선다.

NoteBase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랴마난
>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樣)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① '이화'는 배나무 꽃을 말한다.
② '은한'은 은하수를 말한다.
③ '삼경'은 해 질 무렵의 시간을 말한다.
④ '일지'는 한 나뭇가지를 말한다.
⑤ '자규'는 소쩍새를 말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와 고어의 문맥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특히 시간 표현인 '삼경'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이화(梨花)는 배나무 꽃, 은한(銀漢)은 은하수, 삼경(三更)은 한밤중을 뜻한다. 일지(一枝)는 한 나뭇가지, 자규(子規)는 소쩍새를 가리킨다. 화자는 배꽃에 달빛이 비치고 은하수가 보이는 깊은 밤에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화(梨花)'에서 '이(梨)'는 배나무를, '화(花)'는 꽃을 뜻하므로 배나무 꽃이라는 설명이 맞다.
② O — '은한(銀漢)'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강이라는 뜻으로, 은하수를 가리킨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해 질 무렵'이다. '삼경(三更)'은 밤을 다섯 구간으로 나눈 시각 가운데 셋째 경으로, 해 질 무렵이 아니라 한밤중인 대략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무렵을 뜻한다.
④ O — '일지(一枝)'는 '한 일(一)'과 '가지 지(枝)'가 결합한 말이므로 한 나뭇가지를 뜻한다.
⑤ O — '자규(子規)'는 소쩍새를 가리키는 한자어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삼경'을 저녁의 시작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시의 '월백', '은한', '잠 못 들어'와 같은 표현은 배경이 해 질 무렵이 아니라 깊은 밤임을 보여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에서 직접 뜻을 풀 수 있는 말은 글자별 의미를 확인하고, 시간이나 동식물을 가리키는 관용적 한자어는 작품의 문맥과 함께 판단한다. '삼경'은 깊은 밤, '자규'는 소쩍새로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화는 배꽃, 은한은 은하수, 삼경은 한밤중, 일지는 한 가지, 자규는 소쩍새이다.

NoteBase

6. 다음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① 자연의 자정 작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다.
② 현재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③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함을 성찰한다.
⑤ 현실의 갈등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해소되기를 염원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의 상징적 의미를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에 연결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에서 자연물은 그 자체의 모습만 나타내지 않고 화자의 정서나 현실의 상황을 상징할 수 있다. 이 시의 '강'은 고단한 노동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비추며, '깊어 가는' 모습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자연의 자정 작용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해석은 ㉠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이 강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현실을 상징한다.
② X — '현재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담배를 피우고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무력감과 쓸쓸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의 고단한 삶을 체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다.
③ O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④ X — '설의적 표현'이라는 판단이 잘못되었다. ㉠은 의문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 아니라, 강의 모습을 서술하여 사람들의 깊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⑤ X — '현실의 갈등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해소되기를 염원한다'는 해석은 근거가 없다. 흐르는 물은 갈등 해소의 소망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단한 사람들의 삶과 그 속에서 깊어지는 슬픔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스스로'와 '흐르는 물'만 보고 자연의 자정 작용이나 갈등의 해소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의 의미는 '담배나 피우고', '말긴 한 생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과 같은 주변 시구에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적 대상의 상징을 묻는 문항에서는 해당 시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앞뒤에 제시된 인물의 처지, 화자의 행동, 정서적 분위기를 먼저 확인한다. 여러 시구가 가난·고단함·무력감을 가리키면 자연물도 그 현실과 정서를 반영하는 상징으로 해석한다.

암기 포인트

'깊어 가는 강'은 '깊어지는 고통과 슬픔'이다.

NoteBase

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며, 개인은 절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죽은 과거의 사실을 살펴본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통찰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사회라는 것과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서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고려해볼 때, 역사 서적을 읽을 때 던져야 하는 가장 큰 질문은 ㉠ 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
>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누군가의 삶들을 통해 현재의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역사적 사실이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는가?'
② '역사가의 임무는 무엇이며, 역사는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
③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고,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④ '역사 서적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이 과연 진실인가? 어떤 조작된 요소는 없는가?'
⑤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은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빈칸의 앞뒤 문맥을 연결하여 글쓴이가 역사 서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맥에 맞는 내용은 빈칸 주변에서 반복되거나 구체화되는 중심 생각과 일치해야 한다. 이 글은 역사를 죽은 과거의 사실로 보는 태도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수정하는 태도를 대비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이 현재의 '나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역사적 사실이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관점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빈칸 뒤에서는 과거의 삶을 통해 현재의 삶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맥에 맞게 고치면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이 나의 현재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가?'가 된다.

② X
역사가의 임무와 역사 기술 방법을 묻는 것은 역사 서술의 방법론에 관한 질문이다. 글의 중심은 역사 서술의 방법이 아니라 역사를 읽는 개인이 과거를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해야 한다.

③ X
역사적 사실의 발생 원인과 이후의 전개를 묻는 것은 과거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질문이다. 글은 과거의 사실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삶과 연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그 역사적 사실과 해석이 현재의 나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해야 한다.

④ X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이나 조작 여부를 묻는 것은 사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질문이다. 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역사 읽기의 '가장 큰 질문'은 현재의 삶과의 관련성이다. 올바르게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이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고 해야 한다.

⑤ O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이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묻는다. 이는 바로 뒤의 '과거의 누군가의 삶들을 통해 현재의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내용과 정확히 이어지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④도 역사 연구나 역사 읽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질문이 아니라 글쓴이가 문맥상 '가장 큰 질문'이라고 보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특히 빈칸 뒤의 '나의 삶', '현재의 삶을 수정'이라는 표현을 놓치면 관점·방법·인과·진실성에 관한 선지로 잘못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이 앞 문단의 결론과 뒤 문단의 구체적 설명을 잇는 자리라면, 뒤 문장에서 반복되는 핵심어를 먼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누군가의 삶'과 '현재의 삶을 수정'이 핵심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⑤를 선택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빈칸 뒤의 '현재의 삶을 수정'은 역사와 '나의 삶'의 관련성을 묻는 ⑤의 직접적인 근거이다.

NoteBase

8. ㉠, ㉡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함을 믿는다.
> ㉡ 그녀는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불렀다.

① ㉠은 부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이다.
② ㉠의 안긴문장에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③ ㉡은 명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이다.
④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⑤ ㉠과 ㉡은 모두 서술절을 포함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안긴문장의 종류를 판별하고, 안긴문장 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절은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나 '-기'가 붙어 문장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절이다.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서술어가 뒤의 체언을 꾸미는 절이다. 서술절은 '토끼는 귀가 길다'의 '귀가 길다'처럼 한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이다.
㉠의 '그 사람이 정직함'은 조사 '을'과 결합하여 '믿는다'의 목적어가 된 명사절이다. ㉡의 '내가 모르는'은 뒤의 '노래'를 꾸미는 관형절이며, 그 관형절 안에서는 '모르다'의 목적어인 '노래를'이 생략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그 사람이 정직함'은 '무엇을 믿는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틀린 표현 '부사절'은 '명사절'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 '그 사람이'가 드러나 있으므로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다'이다.
③ X — ㉡의 '내가 모르는'은 뒤의 명사 '노래'를 꾸미므로 관형절이다. 틀린 표현 '명사절'은 '관형절'로 고쳐야 한다.
④ O — ㉡의 관형절을 완전하게 풀면 '내가 노래를 모르는'이므로, 관형절 안에서 '모르다'의 목적어 '노래를'이 생략되어 있다.
⑤ X — ㉠에는 명사절이,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으며 두 문장 모두 서술절을 포함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과 ㉡은 각각 명사절과 관형절을 포함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 전체 문장에 목적어 '노래를'이 보인다는 이유로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안긴문장만 복원하면 '내가 노래를 모르는'이 되므로, 관형절 내부에서는 꾸밈을 받는 명사와 같은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안긴 절이 전체 문장에서 맡는 역할을 확인한다. 조사와 결합해 주어·목적어처럼 쓰이면 명사절이고, 뒤의 체언을 꾸미면 관형절이다. 관형절의 생략 성분은 꾸밈을 받는 체언을 절 안의 빈자리에 넣어 문장을 복원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으)ㅁ·-기'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뒤의 체언을 꾸미면 관형절이다. 관형절은 꾸밈을 받는 체언과 같은 성분이 절 안에서 생략될 수 있다.

NoteBase

9. 다음 글에서 '루스벨트'가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카리브해에 있는 섬의 잠수함 기지 건설계획을 그에게 물었다. 이 계획은 군사기밀이었으므로 루스벨트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따지고 들 게 분명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 보지 말자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루스벨트는 긴장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
> "비밀 지킬 수 있어?"
>
> 친구는 기지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큰 소리로 답했다.
>
> "물론이지!"
>
> 이에 루스벨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
> "나도 그래."
>
> 루스벨트는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하면서 친구의 체면을 지켰다.

① 인정에 호소하는 태도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② 재치 있는 답변으로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③ 상대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④ 상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여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화법을 쓰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난처한 요구를 받은 인물이 말의 표면적 의미를 재치 있게 비틀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친구는 군사 기밀인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한다. 루스벨트는 직접 거절할 때 생길 갈등을 피하려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친구가 그렇다고 하자 '나도 그래'라고 답한다. 이 말은 자신도 비밀을 지키겠다는 뜻이므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친구의 체면을 지킨 대응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재치 있는 답변은 예상과 다른 말의 전환이나 중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난처한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이 사례에서는 친구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대답을 '나 역시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되받아 기밀 공유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한다.

적용 기준

말하기 방식을 판단할 때는 말투의 겉모습보다 화자의 목적과 실제 효과를 확인한다. 루스벨트의 목적은 친구를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밀을 지키는 것이며, 실제 효과는 유머를 활용한 간접적 거절과 긴장 완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인정에 호소하여 상대를 설득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루스벨트는 친구의 감정이나 친분을 내세워 설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말의 의미를 재치 있게 전환하여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한다.
② O — '나도 그래'는 자신도 비밀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정보를 알려 달라는 난처한 요구를 유머러스하게 피한 재치 있는 답변이다.
③ X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루스벨트는 기지 계획을 듣고 싶다는 친구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친구의 체면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기대를 부드럽게 거절한다.
④ X —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거절 의사는 드러나지만 '말해 줄 수 없다'고 직접 단언하지 않고 재치 있는 표현으로 우회한다. 올바르게는 상대의 말을 이용해 간접적이고 유머러스하게 거절한다.
⑤ X —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루스벨트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말의 전환을 통해 스스로 답의 뜻을 알아차리게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거절'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핵심은 거절 여부보다 거절의 방식이다. 루스벨트는 단호하고 직접적인 표현 대신 친구의 대답을 되받는 유머로 난처한 상황을 해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 방식 문제에서는 화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로 어떤 목적을 이루었는지, 표현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예상 밖의 말 전환으로 갈등을 피했다면 재치 있는 답변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비밀을 지킬 수 있어?'—'물론이지.'—'나도 그래.'는 상대의 말을 되받아 기밀 요구를 재치 있게 거절한 표현이다.

NoteBase

10. 한자 성어와 뜻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股肱之臣: 다리와 팔과 같이 중요한 신하.
② 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③ 要領不得: 말이나 글의 목적이나 의미가 분명치 않음.
④ 牽强附會: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굴복함.
⑤ 肝膽相照: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의 글자 뜻과 관용적 의미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견강부회(牽強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곡학아세(曲學阿世)는 학문이나 진리를 굽혀 세상이나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것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굉지신(股肱之臣)은 다리와 팔처럼 임금이 가장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를 뜻하므로 연결이 옳다.
② O — 호가호위(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하므로 연결이 옳다.
③ O — 요령부득(要領不得)은 일의 중요한 부분이나 말·글의 핵심 뜻을 잡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연결이 옳다.
④ X — 틀린 부분은 견강부회(牽強附會)를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굴복함'으로 풀이한 것이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을 뜻한다. 제시된 풀이는 학문이나 진리를 굽혀 세상이나 권력자에게 아첨한다는 곡학아세(曲學阿世)에 가깝다.
⑤ O —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간과 쓸개를 서로 내보일 만큼 속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사귀는 것을 뜻하므로 연결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④의 풀이만 보고 '억지로 권력에 붙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견강부회와 곡학아세를 혼동하기 쉽다. 견강부회의 핵심은 '이치를 억지로 끌어다 붙임'이고, 곡학아세의 핵심은 '학문을 굽혀 세상이나 권력에 아첨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를 글자 단위로 풀어 핵심 동작을 확인한다. '牽·強·附·會'는 억지로 끌어 붙이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주장이나 해석의 억지스러운 연결과 관련되고, 세상이나 권력에 아첨하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견강부회는 말을 억지로 붙이고, 곡학아세는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

NoteBase

11. 다음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선천성 면역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1 방어선으로서 피부, 점막, 정상미생물상이고, 다른 하나는 제2 방어선으로서 식세포, 염증, 발열, 항미생물 물질 등입니다.

(나) 면역은 크게 선천성(비특이적) 면역과 후천성(특이적) 면역으로 나뉩니다. 선천성과 후천성은 말 그대로 면역을 태어날 때부터 완비했느냐, 살아가면서 습득했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 다른 하나는 세포성 면역으로, T세포에 의존하며 세포 내부에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라) 후천성 면역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액성(항체 매개) 면역으로,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내뿜는 면역 방식입니다. 체액에 엄청난 양의 항체를 뿌리는 세포는 B세포입니다.

(마) T세포는 자기 자신의 세포가 비자기로 돌변한 것, 예컨대 암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T세포는 면역을 활성화하기도 억제하기도 합니다.

① (가) - (라) - (다) - (마) - (나)
② (나) - (가) - (다) - (마) - (라)
③ (나) - (가) - (라) - (다) - (마)
④ (나) - (라) - (가) - (마) - (다)
⑤ (라) - (다) - (나) - (마) - (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면역의 전체 분류에서 세부 유형으로 좁혀 가는 흐름과 '하나는—다른 하나는'의 지시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 면역을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크게 나눈다.
2. (가) — 먼저 선천성 면역을 제1 방어선과 제2 방어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 (라) — 이어 후천성 면역의 두 종류 가운데 하나인 체액성 면역과 B세포를 설명한다.
4. (다) — '다른 하나는'으로 (라)의 '하나는'을 받아 세포성 면역과 T세포를 설명한다.
5. (마) — 앞에서 제시한 T세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덧붙인다.

왜 이 순서: (나)의 전체 분류가 (가)와 (라)의 세부 설명을 열고, (라)의 '하나는'이 (다)의 '다른 하나는'과 짝을 이루며, (다)에서 소개한 T세포가 (마)의 설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선천성 면역 세부 설명보다 전체 분류인 (나)가 먼저 와야 한다. 또한 (마)의 T세포 설명은 T세포를 처음 제시하는 (다) 뒤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가)－(라)－(다)－(마)－(나)는 올바르게는 (나)－(가)－(라)－(다)－(마)이다.
② X — (다)의 '다른 하나는'은 (라)의 '하나는 체액성 면역'이라는 내용을 받아야 하므로 (라)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순서 (나)－(가)－(다)－(마)－(라)는 올바르게는 (나)－(가)－(라)－(다)－(마)이다.
③ O — 전체 분류 (나), 선천성 면역의 세분 (가), 후천성 면역의 첫 유형 (라), 다른 유형 (다), T세포의 기능 (마) 순으로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④ X — (마)는 T세포의 기능을 설명하지만 T세포는 뒤의 (다)에서 비로소 세포성 면역의 담당 세포로 제시된다. 틀린 순서 (나)－(라)－(가)－(마)－(다)는 올바르게는 (나)－(가)－(라)－(다)－(마)이다.
⑤ X — (라)의 '후천성 면역에도'는 앞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함께 제시한 (나)를 전제로 하므로 첫 문장이 될 수 없다. 또한 (다)의 T세포 소개보다 (마)의 기능 설명이 뒤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라)－(다)－(나)－(마)－(가)는 올바르게는 (나)－(가)－(라)－(다)－(마)이다.

오답 포인트

면역 지식만 따라가면 문장 간 연결 표지를 놓치기 쉽다. 정답을 가르는 핵심은 (라)의 '하나는'과 (다)의 '다른 하나는'이 한 쌍이라는 점, 그리고 (다)에서 T세포를 소개한 뒤 (마)에서 그 기능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순서 문제는 먼저 전체 분류 문장을 찾고, '하나는－다른 하나는'과 같은 대응 표현을 붙인 뒤, 새로 소개된 대상과 그 대상의 구체적 설명을 차례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전체 분류 → 선천성 세분 → 후천성의 하나와 다른 하나 → T세포 기능의 흐름이다.

NoteBase

12. ㉠~㉤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보 기>

그리하여 가축과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농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다.

곡물 사료는 비단 가축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는 곡식에 비해서 낭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식품이다. ㉡ 오늘날 1인분의 쇠고기 생산을 위해서 20인분의 곡물이 투입되고 있고, 1칼로리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보통 35칼로리의 석유가 소모되고 있다. ㉢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10억의 비만 인구와 10억의 기아 인구의 공존이라는 비극적 현실이다. ㉣ 또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료용 곡물 재배에는 살충제가 무제한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오늘날 육류 소비가 늘어가는 것과 병행해서 아까운 열대 우림이 끝없이 훼손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토양 오염 및 토지 열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접속 표현과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앞내용을 확인하고, 삽입 문장 뒤의 내용이 그 결과를 이어 설명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올바른 순서

본문은 육류 생산에 많은 곡물과 석유가 소비된다는 점, 비만 인구와 기아 인구가 공존하는 결과, 사료용 곡물 재배에서 살충제가 남용된다는 문제, 그로 인해 가축·인간·농지가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 열대 우림 훼손과 토양 오염·토지 열화의 확대로 이어진다. 삽입 문장의 '그리하여'는 바로 앞의 살충제 남용을 원인으로 받아 결과를 제시하고, '그 피해'도 그 살충제로 인한 피해를 가리키므로 ㅁ이 알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앞에는 곡물 사료가 가축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조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포괄적 진술만 있어,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틀린 위치 'ㄱ'은 올바르게는 'ㅁ'이다.
② X — ㄴ 앞은 육류가 곡식보다 낭비적이라는 일반 진술이고, 뒤에서 곡물과 석유의 소비량을 구체화한다. 여기에 삽입하면 자원 낭비의 설명이 중간에서 끊기며 '그 피해'의 지시 대상도 불분명하다. 틀린 위치 'ㄴ'은 올바르게는 'ㅁ'이다.
③ X — ㄷ 앞의 곡물·석유 소비는 자원 낭비에 관한 내용이지만, 삽입 문장은 가축과 인간의 건강 및 농지 피해를 말하므로 바로 이어지는 '그 결과는 … 비만 인구와 기아 인구의 공존'과의 결속을 끊는다. 틀린 위치 'ㄷ'은 올바르게는 'ㅁ'이다.
④ X — ㄹ 앞의 '그 결과'는 곡물의 불균형한 소비가 낳은 비만과 기아의 공존을 뜻한다. 아직 살충제 남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삽입 문장의 건강·농지 피해와 '그 피해'를 자연스럽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틀린 위치 'ㄹ'은 올바르게는 'ㅁ'이다.
⑤ O — ㅁ 앞에서 사료용 곡물 재배의 살충제 남용을 제시했으므로, '그리하여'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그 피해'가 살충제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가리킨다. 뒤의 열대 우림 훼손, 토양 오염, 토지 열화도 농지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어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그리하여'만 보고 앞부분의 여러 결과 문장 뒤에 넣기 쉽지만, 핵심은 '그 피해'의 지시 대상이다. 가축과 인간의 건강, 농지의 피해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살충제 남용'이 바로 앞에 놓여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삽입 문장의 접속어로 앞뒤의 논리 관계를 정하고, '그·이·이러한' 같은 지시어가 바로 앞의 어떤 내용을 받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삽입 뒤 문장이 삽입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이어받는 자리인지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접속어는 관계를, 지시어는 자리를 결정한다. 이 문장에서는 '그리하여'와 '그 피해'가 '살충제 남용' 뒤인 ㅁ을 가리킨다.

NoteBase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묘사란 원래 그린다는 뜻의 회화 용어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태를 그림 그리듯 그대로 그려냄을 가리킨다. 역사나 학술처럼 조리를 세워 끌어나가는 것은 기술이지 묘사는 아니다. 실경(實景), 실황(實況)을 보여주어 독자로 하여금 그 경지에 스스로 들고, 분위기까지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한 표현이 묘사다.
>
>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은 자기의 심리다. 자기의 심리인 '아름답구나!'만 써가지고는, 독자는 아무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한다. 독자에게도 그런 심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풍경이 아름다운 까닭을, 즉 하늘, 구름, 산, 내, 나무, 돌 등 풍경의 재료를 풍경대로 조합해서 문장으로 표현해주어야 독자도 비로소 작자와 동일한 경험을 그 문장에서 얻고 한가지로 '아름답구나!' 하는 심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 이렇듯 제재의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이 묘사다.
>
> 묘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 첫째, 객관적일 것. 언제든지 냉정한 관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둘째, 정연할 것.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순서가 있어야 전체 인상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셋째,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달라야 할 것. 대상의 핵심과 특색은 취하되,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① 묘사는 실경(實景)과 실황(實況)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묘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주관적인 심정을 표현할 수는 없다.
③ 질서정연하게 묘사할수록 대상은 분명하게 전달된다.
④ 대상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대상의 모든 정보를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묘사는 제재의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묘사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한 글에서 객관성·정연성·선택성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묘사는 제재의 현상을 언어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하여 독자가 그 광경과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표현 방식이다.
객관성은 냉정한 관찰을 바탕으로 대상을 표현한다는 뜻이지, 글쓴이의 주관적 심리나 정서를 전혀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연성은 시간적·공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여 전체 인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택성은 대상의 핵심과 특색은 취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본문은 묘사가 실경과 실황을 보여 주어 독자가 그 경지에 스스로 들게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주관적인 심정을 표현할 수는 없다'이다. 본문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느낀 작자의 심리를 독자에게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객관적 관찰을 거치면서도 주관적 심리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③ O — 본문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순서를 갖추면 전체 인상이 선명해진다고 하므로, 질서정연한 묘사는 대상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④ O — 본문은 사진과 달리 대상의 핵심과 특색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상의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

⑤ O — 본문에 '제재의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이 묘사다'라고 직접 제시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객관적'이라는 말을 '주관적 심정의 완전한 배제'로 오해하기 쉽다. 이 글에서 객관성은 관찰의 태도이고, 묘사의 목적에는 작자가 받은 인상과 심리를 독자도 느끼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문의 원칙과 선지의 단정 표현을 대조한다. 특히 '표현할 수는 없다', '모든 정보'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말이 나오면 본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묘사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질서 있게 배열하며, 핵심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려 인상과 분위기를 재현한다.

NoteBase

14. ㉠~㉤의 파생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어른스럽다, 슬기롭다
㉡ 끓이다, 높이다
㉢ 짓밟다, 짓누르다
㉣ 착하다, 아름답다
㉤ 먹이, 덮개

① ㉠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다르다.
② ㉡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같다.
③ ㉢에서 접두사는 명사 어근에 붙어 '함부로', '마구'의 뜻을 더한다.
④ ㉣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에서 접미사는 형용사 어근에 붙어 명사를 파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파생어를 어근과 접사로 나누고,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고 일반적으로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어른스럽다: 어른(명사)+-스럽다(접미사) → 형용사
슬기롭다: 슬기(명사)+-롭다(접미사) → 형용사
끓이다: 끓-(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 → 동사
높이다: 높-(형용사 어근)+-이-(접미사) → 동사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어른'과 '슬기'는 명사이고, '어른스럽다'와 '슬기롭다'는 형용사이다. 두 단어 모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서로 다르다.
② X —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같다'가 틀린 표현이다. '끓이다'는 동사 어근 '끓-'에서 동사로 파생되어 품사가 같지만, '높이다'는 형용사 어근 '높-'에서 동사로 파생되어 품사가 다르다. 올바르게는 '㉡에서 끓이다는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같고, 높이다는 서로 다르다'이다.
③ X — '명사 어근에 붙어'가 틀린 표현이다. '짓밟다'와 '짓누르다'의 '짓-'은 동사 어근 '밟-', '누르-' 앞에 붙어 '마구,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올바르게는 '㉢에서 접두사는 동사 어근에 붙어 마구 또는 함부로의 뜻을 더한다'이다.
④ X —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가 틀린 표현이다. '착하다'의 '착-'과 '아름답다'의 '아름'은 이 파생어에서 어근이지만 홀로 쓰이는 명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 홀로 쓰이지 않는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이다.
⑤ X — '형용사 어근에 붙어'가 틀린 표현이다. '먹이'는 동사 어근 '먹-'에 접미사 '-이'가, '덮개'는 동사 어근 '덮-'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올바르게는 '㉤에서 접미사는 동사 어근에 붙어 명사를 파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접사가 붙은 뒤의 품사만 보고 어근의 품사를 추측하면 ②와 ⑤에 속기 쉽다. 특히 '높이다'는 동사이지만 어근 '높-'은 형용사 '높다'의 어근이고, '먹이'와 '덮개'의 어근은 각각 동사 '먹다'와 '덮다'에서 확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접사를 떼어 어근을 찾고, 그 어근이 들어 있는 기본형의 품사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완성된 파생어의 품사와 비교하여 품사 변화 여부를 판단한다. 접두사는 앞에, 접미사는 뒤에 붙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어른·슬기는 명사에서 형용사로, 높-은 형용사에서 동사로, 먹-·덮-은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된다.

NoteBase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공산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측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일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 공정의 합리적 발달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소비가 줄어드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한다. 뉴스에서도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종업원 규모가 만 명 되는 공장을 독일식의 '산업 4.0 시스템'을 적용해서 합리화했더니 종업원 수가 5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 나머지 9,500명은 어디로 갔겠는가 말이다.
>
> 인공지능이 대거 활약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돼서 이런 일이 상품과 지식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어쨌건 상품이나 지식의 값은 싸지겠지만, 그것을 돈 주고 사는 소비자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
>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괜찮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용어로 사회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져서 아주 많은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과 일자리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세상이 양극화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공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목할 책이 1516년 출간된 영국 작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이 책이 선구적인 이유는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모어는 '좋은 곳'이라는 뜻의 'eu-topia'와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의 'ou-topia'를 동시에 나타내는 중의적 개념으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뜻하게 되었다.
>
> 디스토피아(dystopia)는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상당히 끔찍한 미래의 어떤 사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접두어 'dys'는 '나쁜', '고된'이란 뜻이다. 디스토피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말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표현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기계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디스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었다.

① 인공지능 기술은 유토피아적 세계와 디스토피아적 세계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술이다.

② '디스토피아'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③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질 수 있다.

④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의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⑤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표현이다.

정답 5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유토피아·디스토피아의 가능성과 두 용어의 형성 관계를 지문에 근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가 1516년 출간한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좋은 곳'과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함께 담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가리킨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과 기계화에 따른 인간성 상실이 논의되면서 19세기에 만들어진 암울한 미래 사회를 뜻한다.
과학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상품과 지식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도 초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인공지능 기술은 값싼 상품과 지식을 제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가능성과, 일자리 감소·소비 위축·양극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토피아적 세계와 디스토피아적 세계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O — 지문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기계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논의가 시작되면서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③ O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일하는 사람이 줄고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져, 고소득 소수와 일자리가 없는 다수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④ O — 지문은 '유토피아'가 토머스 모어의 1516년 저서 『유토피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명시한다.
⑤ X — 틀린 부분은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표현이다. 유토피아는 1516년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며, 디스토피아는 그보다 뒤인 19세기에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만들어졌다. 올바르게는 '디스토피아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관계를 거꾸로 제시한다. 유토피아가 먼저 생기고 디스토피아가 나중에 그 반대말로 만들어졌으므로, 유토피아를 디스토피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의 뜻만 보지 않고 지문에 제시된 등장 순서와 형성 배경을 함께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유토피아 1516년 → 디스토피아 19세기'의 순서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라는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유토피아는 1516년의 이상향, 디스토피아는 19세기에 등장한 그 반대말이다.

NoteBase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몸을 닦는 일(修身)은 효도와 우애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효도와 우애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학식이 고명하고 문체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흙담에다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몸을 이미 엄정하게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일 것이므로 같은 기질로써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
>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고 있다.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며, 비록 충직하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
> 대체로 이 세상에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하거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①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② 효와 우애의 덕목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권하고 있다.

③ 학문에 깊이가 있고 충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스스로가 단정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⑤ 어떤 일이 있어도 천륜을 어기는 사람은 경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신과 친구 선택의 관계를 설명한 글의 핵심 주장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는 효도와 우애를 수신의 근본으로 보고, 먼저 자신을 엄정하게 닦으면 비슷한 목표와 단정한 품성을 지닌 사람을 자연스럽게 벗으로 사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충직하고 인정이 있어 보여도 나약하여 부모·형제의 은혜와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끝내 친구에게도 신의를 지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첫 문단은 효도와 우애를 수신의 근본으로 제시하고,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으면 단정한 사람을 벗으로 사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② O — 글은 부모·형제의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은 벗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효도와 우애의 덕목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학문에 깊이가 있고 충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한다'이다. 글은 학문이 깊거나 충직한지만으로 친구를 판단하지 않으며, '비록 충직하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더라도' 나약한 사람은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학문이나 겉으로 드러난 충직함과 무관하게, 나약하여 천륜의 은혜와 의리를 저버릴 사람은 가까이하지 않아야 한다.
④ O — 자신을 엄정하게 닦으면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이 된다는 첫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스스로 수신하여 단정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⑤ O — 글은 부모·형제의 은혜와 의리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을 '무릇 불효자'와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따라서 천륜을 어기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이해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학문에 깊이가 있고 충직한 사람'이라는 긍정적 표현만 부각해 판단을 흐린다. 그러나 글의 핵심 기준은 학문이나 겉으로 보이는 충직함이 아니라, 부모·형제에 대한 효도와 우애를 지키는 단정한 품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평가 기준이 본문의 기준과 같은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친구 선택의 기준을 '학문·능력·겉으로 드러난 성실함'과 '효도·우애에 바탕을 둔 단정한 품성'으로 나누면 ③의 왜곡을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먼저 수신하고, 벗은 효도와 우애를 지키는 품성으로 판단한다.

NoteBase

17.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 어휘는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	㉡
①	물은 낮은 지대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②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
③	우리는 넓은 공터에 모였다.	우리집 마당은 꽤 넓다.
④	그녀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힘든 만큼 기쁨도 큰 법이다.
⑤	형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집결 장소는 가까운 곳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간과 관련된 형용사의 중심적 의미가 추상적인 주변적 의미로 확장된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심적 의미는 한 단어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 의미이고, 주변적 의미는 그 기본 의미가 비유·추상화되어 확장된 의미이다. 이 문항에서는 ㉠이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고 ㉡이 정도·성질·상태 같은 추상적 대상을 나타내야 한다. '낮은 지대'의 '낮다'는 공간적 높이가 기준보다 아래임을 뜻하고, '관심도가 낮다'의 '낮다'는 관심의 정도가 적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낮은 지대'는 물리적 높이가 아래라는 중심적 의미이고, '관심도가 낮다'는 관심의 정도가 적다는 추상적 주변 의미이다. ㉠에서 ㉡으로 의미가 확장된 관계에 해당한다.

② X — ㉠의 '좁은 소견'이 이미 생각이나 식견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추상적 의미이므로 물리적 공간의 중심적 의미가 아니다. ㉠은 '좁은 골목'처럼 실제 공간의 폭이 작다는 표현이어야 하고, ㉡의 '마음이 좁다'는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주변적 의미이다.

③ X — '넓은 공터'와 '넓은 마당'은 모두 실제 공간의 너비가 크다는 중심적 의미이다. ㉡은 '견문이 넓다'처럼 지식이나 경험의 범위가 크다는 추상적 표현이어야 한다.

④ X — '가능성이 크다'와 '기쁨이 크다'는 모두 가능성이나 감정의 정도가 많다는 추상적 주변 의미이다. ㉠은 '큰 집'처럼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한다.

⑤ X — '사실에 가깝다'는 사실과의 유사성이 높다는 추상적 주변 의미이고, '가까운 곳'은 공간적 거리가 짧다는 중심적 의미이다. 제시된 ㉠과 ㉡의 의미 관계가 반대이며, '가까운 곳'을 ㉠에, '사실에 가깝다'를 ㉡에 두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밑줄 친 형용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의미 확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 ⑤는 물리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가 모두 제시되어 있어 특히 그럴듯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순서와 반대로 배치되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높이·너비·크기·거리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지 먼저 본다. 이어 ㉡이 정도·마음·가능성·유사성처럼 추상적 대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면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로의 확장을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간의 구체적 속성이 정도나 상태로 옮겨 가면 '중심적 의미 → 주변적 의미'이다.

NoteBase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때에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 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
>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
>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 "……."
>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 "……."
>
>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 "……."
>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버이."
>
>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
>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
>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
>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 - 현진건, 「운수 좋은 날」에서 -

① 반어적 기법이 나타난다.
②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③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설렁탕'은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설의 대화, 비속어, 음성 상징어, 반어적 상황과 소재의 기능을 작품의 구체적 맥락에 맞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상황과 실제 의미·결과가 어긋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다. 음성 상징어는 소리나 상태를 언어의 소리로 나타내어 장면을 생생하게 만든다. 소재는 사건과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거나 비극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내가 죽은 비극적 상황에서 김 첨지가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겉으로는 좋은 운수를 말하지만 실제 결과는 참혹하다는 점에서 반어적 효과를 낸다.

② X — 김 첨지가 일방적으로 아내를 다그치고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응답 없는 아내를 향한 김 첨지의 일방적인 말이 이어지면서 아내의 죽음이 확인되고 비극적 상황이 심화된다'이다.

③ O — '이년아', '오라질 년'과 같은 비속어는 가난한 인물의 거칠고 현실적인 언어생활을 드러내어 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④ O — '빽빽', '응아' 같은 음성 상징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리는 듯 나타내어 현장감과 표현 효과를 높인다.

⑤ O — '설렁탕'은 아내가 먹고 싶어 했지만 죽은 뒤에는 먹을 수 없게 된 음식이므로, 김 첨지의 뒤늦은 후회와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인물 사이에 말이 오간다고 해서 언제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내의 말이 전혀 없고 김 첨지의 말만 이어지므로 '대화'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극성이 커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 기법은 해당 단어와 문장을 직접 찾고, 대화의 기능은 말의 주고받음과 갈등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소재의 기능은 그 소재가 사건의 결말과 인물의 정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응답 없는 독백은 갈등 해소가 아니며, '운수 좋은 날'과 아내의 죽음의 대비 및 먹지 못하는 설렁탕은 비극적 반어를 강화한다.

NoteBase

19. 외래어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포즈(propose)
② 플랫폼(platform)
③ 레이다(radar)
④ 장르(genre)
⑤ 배지(badg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원어 철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발음과 국어의 표기 원칙에 따라 정한 한글 표기를 사용한다. 이 문제에서 propose의 바른 표기는 '프러포즈'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프로포즈(propose)'는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르게는 '프러포즈(propose)'라고 적는다.
② O — '플랫폼(platform)'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③ O — '레이더(radar)'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④ O — '장르(genre)'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⑤ O — '배지(badge)'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뱃지'로 적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자주 쓰는 '프로포즈'를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badge를 흔히 '뱃지'라고 적지만 바른 표기는 '배지'이므로, 익숙한 표기와 규범 표기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 표기 문제에서는 일상적인 사용 빈도나 원어 철자에 기대지 않고 규범으로 정해진 한글 표기를 확인한다. 특히 '프러포즈'와 '배지'처럼 실제 사용형과 규범 표기가 자주 엇갈리는 말을 우선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러포즈, 뱃지가 아니라 배지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 있는 조수 애가 한 번 철호를 돌아다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곧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버렸다.

"아니야, 가."

"X경찰섭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하 참, 딱한 아저씨네."

"……."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誤發彈)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 이범선, 「오발탄」에서 -

① '철호'는 삶의 의지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
② '운전수'는 '철호'에게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철호'와 '운전수' 사이의 계급 차이가 잘 드러난다.
④ '철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⑤ 'S병원'과 'X경찰서'는 '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향이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심리 상태, 인물 관계,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철호는 아내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S병원'과 'X경찰서'를 번갈아 외치고, 도착한 뒤에도 내리지 않으며 다시 '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를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 철호가 눈을 감고 누워 목적지를 계속 바꾸는 모습에서는 삶의 의지를 점차 회복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삶의 의지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아내의 죽음에 따른 충격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방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 운전수는 철호를 힐끔 쳐다보다가 끝내 '딱한 아저씨', '취했나?', '오발탄 같은 손님'이라고 말한다. 이는 철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라기보다 의아해하고 답답해하는 태도이다.
- 틀린 표현은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운전수가 철호의 이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함과 불만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③ X
- 운전수가 철호를 '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택시 운전수와 승객의 관계를 나타낼 뿐, 두 사람의 계급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계급 차이가 잘 드러난다'이다. 올바르게는 두 인물의 관계가 운전수와 승객으로 제시되며, 계급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④ O
- 철호는 'S병원으로 가', 'X경찰서로 가', '아니야, 가'라고 목적지를 거듭 바꾸고,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도 '글쎄, 가!'라고 답한다. 이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상태를 직접 보여 준다.

⑤ X
- 택시는 X경찰서 앞에 실제로 도착하므로 X경찰서 자체가 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없다. 두 장소는 철호의 현실적 고통과 관련된 공간이며, 목적지 번복은 그의 혼란과 방황을 보여 준다.
- 틀린 표현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향'이다. 올바르게는 'S병원'과 'X경찰서'가 철호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 공간이라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삶의 의지나 이상향을 향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철호는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이미 도착한 곳에서도 내리지 못한다. 반복되는 이동 명령은 의지의 회복이 아니라 충격으로 인한 혼란과 방향 상실의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심리를 묻는 선지는 말 한마디만 보지 않고 앞뒤 행동을 함께 확인한다. 목적지의 반복적 변경, 질문에 대한 불명확한 대답, 도착 뒤에도 내리지 않는 행동을 묶으면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방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목적지 번복과 ‘글쎄, 가!’는 삶의 방향을 잃은 철호의 방황을 드러낸다.

NoteBase